



2015
통권 제9호

행복한 도시 세종!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세종의회소식

Sejong City Council



세종 특별자치시의회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유난히 무덥던 여름도 물러가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한 가운데 금번 임시회에서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비회기 중에도 의원 연구모임, 각종 위원회 활동과 토론회 참석, 그리고 민생현장을 방문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여름 무더위와 북한의 지뢰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조치원 복숭아 축제와 서민경제 살리기 및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등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매진해 온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제정비 조례안 및 동의안 등 많은 안건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에 제출된 부의안건에 대해서 잘못된 제도와 정책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는 않는지, 추가경정예산안이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챙기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은 정확한 자료 제공과 성실한 답변으로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32회 임사회 개회사

등화가친, 독서의 계절 가을입니다. 송나라의 정치가 “왕안석”은 권학문에서『빈자인서부 부자인 서귀(貧者因書富 富者因書貴)』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독서로 부자가 되고, 부유한 사람은 독서로 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책과 공부를 통해 세상과 나를 바꾸고 행복한 세상을, 행복도시 세종을 같이 만들어 가는 넉넉한 가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9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임상전



Contents

03	세종의정 소식
15	5분 자유발언
17	주요 안건 처리 현황
20	결의문
23	상임위원회 활동
31	언론에 비친 세종시의회
35	세종시 가볼만한 곳

News

세종의정 소식



농번기에 두팔 걷고 나선 세종시 의회사무처

농번기 지역 주민들의 일손 부족 해결과 농민들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껴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 사무처 직원 15명은 제2대 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은 7월 1일 연서면 청라리 마을에서 농번기 지역 주민들의 일손을 덜어준은 물론, 현지 농민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자 농번기 농촌일손돕기에 나섰다.

이날 일손돕기는 배 재배농가를 찾아 무더위속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하기 위한 배나무 지지대 정비 등의 작업을 실시했다.

장만희 의회사무처장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최근 가뭄과 고온 등 다중고를 겪고있는 농가에 미력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농촌일손돕기를 전개해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형권 의원, 전국 최초로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 및 학교를 대상으로 화장실 관리 조례안’ 제정

청결하고 깨끗한 화장실 유지를 통해 선진 화장실 문화 정착 계기 마련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형권 의원은 전국 최초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을 제정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은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 및 학교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화장실의 위생적 관리로 학생 및 교직원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되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청결 유지 및 위생적 관리를 위해 연 4회 정기점검 실시 ▲악취의 발생과 해충의 발생·번식 방지를 위해 기간별로 주1회에서 3회 이상 소독 실시 ▲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없애고, 장애인 및 여자 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물에 잘 분해되는 화장지

비치 등이다. 윤형권 의원은 조례안을 제안하면서 “전국에서 최초로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 및 학교를 대상으로 제정되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는 청결하고 깨끗한 화장실 유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조례로 제정하는 첫 사례다”며 “이번 조례가 전국에 확산되는 도화선이 되어 선진 화장실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의원들, 세종시 신청사 첫 공식 방문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신청사가 되어 개방과 소통의 공간으로 나가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상전 의장을 비롯한 의원 9명은 7월 9일 오전 10시 30분 세종시 신청사를 처음으로 공식 방문해 이춘희 시장의 영접을 받았다. 이후 5층 집현실에서 시청 청사관리담당으로부터 새청사 시설 및 부서배치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신청사 각 실과 근무부서와 옥상, 그리고 재난상황실 등 전반적인 시설현황과 주변시설을 둘러봤다.

정준이 의원은 시장과의 접견 자리에서 “신청사 개청으로 공무원들이 조치원에서 신도시로 많은 이주가 예상된다”며 “조치원읍을 비롯한 구도심이 공동화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서금택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검인) 관련 민원 담당 공무원을 조치원에 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김선무 의원은 “새 청사의 주차공간이 부족해 도로변 불법주차가 많다”며 “개청식 이후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조속히 이를 해결하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임상전 의장은 “신청사 이주가 엇그제 같았는데 어느새 자리를 잡은 것 같아 뿌듯한 감이 든다”며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소통과 개방의 공간으로 꾸며달라.”고 말했다.



제3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예산의 목적이 공공성과 효율성을 갖고 편성·집행

세종시의회(의장 임상전)는 제31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인 7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제2대 세종시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태환 의원(29, 새정치민주연합/조치원을 서창리·신안리·침산리)과 부위원장에 김정봉 의원(57, 무소속 /부강면)을 선출하고 2014 회계연도 결산안 심의에 들어갔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태환 의원은 “예결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의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청년이 잘사는 세종, 시민이 행복한 세종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면서, “무엇보다 점점 커져가는 도시규모에 비례해 시의 재정 규모 또한, 커져가는 현 시정에 예산의 올바른 쓰임이 중요한

만큼, 예산의 목적이 공공성과 효율성을 갖고 공정하게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시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정봉 의원은 “이태환 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고귀한 목소리를 소중히 받들어 발전적 대안 제시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기 예산결산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선임된 고준일, 이정대, 윤형권, 장승업, 정준이 의원과 함께 2016년 6월 14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제2대 세종시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 개최

소통의회, 민생의회에 주력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



우리 의회도 행복도시 세종건설이라는 목표를 향해 의정역량을 결집하고 현장을 찾아가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균형의회, 현장의회, 연구하는 정책의회로 거듭나고자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항상 주민들과 함께하는 소통의회, 민생의회에 주력하고 주민의 삶이 윤택하도록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는 7월 15일 오전 11시 제31회 정례회를 폐회하고, 제2대 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향후 바람직한 의회운영 및 의정방향을 새롭게 모색하고자 ‘제2대 세종시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시 의원을 비롯한 시장과 교육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서금택 의회운영위원장의 경과보고, 1주년 기념 영상, 임상전 의장의 기념사, 제의 절단, 윤형권·장승업 부의장의 건배 제의, 환담 순으로 진행되었다.

임상전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해 정부기관 3단계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정부세종청사 시대를 맞이했으며,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 제4차 회의 개최

그동안 운영성과 분석 및 현안 과제토의를 통해 환경개선방안 적극 발굴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대표 서금택 의원)은 7월 22일 11시, 제4차 회의를 갖고 그동안 운영성과 분석과 비산먼지 발생 예방을 위한 현안 과제 토의 및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연구모임 운영성과는 방진막 설치 및 저탄장 덮개처리 등 선진우수사례를 견학하여 강원연탄공장에 대해서도 도입하도록 시설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강원연탄공장 연구모임 대표 서금택 의원은 “6월에는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를 방문하여 임대한 저탄장부지(철도부지)에 대한 관리감독 및 주민불편사항을 건의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방안을 이끌어 냈다”며 “앞으로 강원연탄공장

의 실효성 있는 환경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조치원읍민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은 오는 9월 중 한차례 연구모임을 더 갖고,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개선방안을 발굴하여 관계 전문가의 자문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11월 중에 연구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환경교육 연구모임 제4차 회의 개최

세종시 학교와 사회의 자원실태 및 방향성 모색을 위한 발표와 토론 전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 의원 환경교육 연구 모임(대표 정준이 의원)은 7월 23일 오후 4시 세종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세종시 환경교육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세종시 학교와 사회의 환경교육 자원실태 현황 발표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세종시교육청 창의진로과 장인자 장학관이 '세종시 학교 환경교육 자원실태 현황 및 방향성'에 대해 발표를 하였고, 이어서 전석천 세종시 환경정책과장이 '세종시 사회 환경 교육 현황 파악 및 정책수립 현황'에 대해 발표를 한 후, 참석 위원들은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충열 의원은 “우리나라도 이제는 국제적인 기후환경 변화에 대비한 조기 교육이 필요하며, 자료를 연구·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등 사전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승업 의원은 “전 국민에게 환경에 대한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한 방안으로 새마을 등 국민운동단체에 자금을 지원하여 계몽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준이 대표의원은 “9월 17일 세종시청 대강당에서 열릴 ‘세종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포럼’에 다수 시민들이 참여하여 평소 느끼는 다양한 의견을 기탄없이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연말까지 그간의 운영 성과를 토대로 ‘세종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하고,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겠다”고 밝혔다.



의회운영위원회, 비교 견학 통해 ‘으뜸의회’ 구현

전라북도의회 방문 의회운영 및 의정지원 활성화 방안 논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서금택 의원)에서는 7월 24일, 전북도의회를 방문해 의정교류 활성화와 의정 역량강화를 위한 비교견학에 나섰다. 이번 비교견학은 세종시의회 서금택 위원장을 비롯한 김복렬 부위원장, 정준이 의원, 김정봉 의원과 전북도의회 백경태 의회운영위원장, 운영위원 및 양 시도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참석해 상호 우호증진 및 생산적인 의회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간담회를 마친 후, 내년도 세종시 보람동에 개청하는 세종시의회 신청사 이전 완벽준비를 위해 본회의장, 상임위 등 사무공간 배치 및 활용방안을 견학하고, 분야별 선진시책 및 우수사례에 대한 업무를 연찬하는 시간이 가졌다.

이번 비교견학에 참가한 서금택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선진의회 비교견학을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 함양과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시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의정에 반영하는 시민중심의 ‘으뜸의회’ 구현에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 신청사 방문

효율적인 사무공간 배치를 위한 경상북도의회 벤치마킹



시민과 공직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 신청사는 보람동 3-2생활권 일원에 사업비 90억원을 투입, 연면적 3,425㎡에 지하 1층 ~ 지상 6층 규모로 건립되며, 내년 5월까지 준공하여 내년 10월경에 입주를 완료할 예정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는 7월 31일 시의회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최적의 의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벤치마킹으로 안동에 있는 경상북도의회 신청사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올해 5월 준공하여 11월까지 입주완료할 예정인 경상북도의회 신청사의 본회의장, 사무실, 의원실, 상임위원회실 구성과 배치 등을 비교하고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2016년 본예산 편성 시 추가 소요예산을 발굴하고, 개청행사 준비상황 등을 배우기 위해 이루어졌다.

장만희 의회사무처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시설 배치 등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세종시의회 신청사 이전의 차질없는 준비로 의정활동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20만 세종

김선무 · 서금택 의원, 우수 의정대상 수상

지역주민들에게 더욱더 봉사하는 계기로 삼을 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 김선무의원과 서금택의원이 8월 12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 주관으로 열린 『제2회 우수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였다.

의장협 관계자에 따르면, 수상자로 선정된 김선무 의원과 서금택 의원은 오지마을 교통대책 마련, 연탄공장과 비행장 인근주민의 민원해결 등에 앞장서 왔으며 무엇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기초의회에서 광역의회로 승격한 세종시의회의 의정역량을 강화하는 등 의회 선진화에 기여한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수상의 영광을 안게된 김선무 의원은 "이 상은 저 개인에게

주는것이 아니라 우리 세종시의회 전체에게 주는 상이며, 지역민과 함께 민심을 살피는 생활정치의 길에 더욱 매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서금택 의원도 "먼저 그동안 세종시 출범과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같이 노력해준 선배 · 동료의원님에 함께 받아야 할 영광스러운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고,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지역의 일꾼으로써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우수 의정대상』시상식은 전국 시 · 도의회 의원 중 각 시 · 도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지난 1년 동안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우수의원에게 상을 수여하는 행사이다.

세종시의회, 대중교통 해법 찾아 나선다

대중교통 운영개선 특별위원회 첫 회의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 대중교통 운영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태환, 이하 대중교통 특위)는 8월 17일 오전 11시, 대중교통 운영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고준일 의원이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된 회의에서는 대중교통 특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각각 이태환, 김원식 의원을 선출하고, 곧바로 향후 특위 활동 기본계획안을 채택하였다. 이어서 시의 교통과로부터 시내버스 업체의 회계감사, 경영평가 및 운송원가 산정에 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았다.

대중교통 특위는 세종시 출범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대중교통 수요에 부응한 운수업체의 경영개선 및 서비스평가를 통해 합리적인 재정 지원 기준을 마련해 시민이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태환 대중교통 특위 위원장은 “오늘 대중교통 운영개선을 위한 첫 번째 회의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현재 진행 중인 시내버스 업체 경영평가 보고 자료를 살펴 보니 운송업체의 보조금 집행은 물론 경영상의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면서, “철저하고 투명하게 검토·분석해서 대중교통 운영 전반에 대한 혁신적인 개선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중교통 특위는 이태환 위원장, 김원식 부위원장, 고준일·서금택·이경대·장승업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올해 12월말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균형발전 연구모임 충북혁신도시 방문

세종시 신·구도심 간 균형발전방안 모색

세종시의회 균형발전 연구모임(대표 윤형권 의원)에서는 8월 26일 오전 10시, 충북혁신도시관리본부(진천·음성)를 방문하여 혁신도시 추진현황과 공공기관 이전 및 이주민 정착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방문단은 충북혁신도시 박승영 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담당과장으로부터 혁신도시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현장시찰 등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혁신도시”는 전국 10개소에 거점별로 조성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산·학·연·관이 서로 협력하여 혁신여건과 수준높은 생활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를 건설하려는 것으로, 진천군 덕산면과 음성군 맹동면 일원에 인구 42,000명을 목표로 주택 14,843호를 건설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6개 기관이 이전 완료한 상태다.

윤형권 연구모임 대표는 “인근에 위치한 충북혁신도시의 장·단점과 신도시 개발을 통한 구도심 상생 발전방안 등을 벤치마킹하여 세종시의 균형발전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균형발전 연구모임은 올해 세차례 연구모임을 갖고, 세종시 균형발전 방안 등을 협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세종시의 균형발전에 적극적인 보탬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 제5차 회의 개최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과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대표 서금택의원)」은 8월 27일 11시, 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도심재생활성화사업과 연계한 주거환경개선, 완충녹지 불법점용에 대한 원상복구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 등을 위한 종합대책 등에 대한 부서별 추진상황을 청취하였고, 지난 4차회의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토론을 통한 발전방안 모색 및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서금택 대표의원은 “단기적으로 공장시설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조치원역 주변을 쾌적한 주거환경 기능을 가진 도시재생 기반시설로 재창조하여 대한민국

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의 관문허브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은 10월중 구체적인 환경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 전문가 초청 토론을 거쳐 오는 11월중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12월중 본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현장방문

지적사항 조치확인, 모의실험 실시, 건의과제 발굴 등 성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위원장 안찬영)는 지난 8월 19일부터 8월 25일 기간 중 3일에 걸쳐 행복도시 1생활권에 위치한 공원, CCTV, 도로 등 3개시설 15개소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제3차 활동의 주요목적은 지난 제1·2차에 점검시 지적된 호수공원 등 5개시설 18건의 처리결과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고, 추가로 1생활권에 위치한 공공시설물로서 연말까지 인계인수를 앞둔 공원, CCTV, 도로 등 주요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로 하여금 시설현황을 청취한 후 실제 운영상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안찬영 위원장은 “이번 현장활동을 통해 BRT(간선 급행버스)도로 아스팔트 두께를 확인하기 위해 시방서와 설계도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코어시료를 채취하여 확인하였

고, 긴급상황 발생을 가정하여 CCTV에 부착된 비상벨을 누르면 도시통합정보센터에서 범죄 추적 등 모의실험을 실시하였다”고 말했다. 한편, 정준이 부위원장은 “오가냥동 근린공원의 주차공간으로 세종충남대병원 예정부지 인근에 주차장 1개소(50면)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추가로 정안IC방향 골프장 인근에 적정 후보지를 제시하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복렬 의원은 “1생활권 중심가의 세종홈플러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법제처 이면도로의 자전거 전용도로 1개소는 부족하다고 보아 정부세종청사 스포츠센터 방향에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등 소기의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임상전 의장, 세종시 효 교육원 신입 원장 취임

학교 인성교육에 효를 접목시키고, 공무원에게 효 지도사 교육 참여 권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상전 의장은 8월 28일 오후 2시 조치원을 명지빌딩 3층에 위치한 효 교육원 강당에서 세종시 효 교육원 원장에 취임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홍영섭 정무부시장, 이진석 부교육감, 윤희권 부의장, 정준이 의원, 이상수 세종경찰서장, 최성규 성산청소년효재단 이사장, 관내 효지도사 및 교육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내빈소개, 신입원장 약력 소개, 위촉장 수여, 임상전 신입원장 취임사 등 순으로 진행되었다. 임상전 의장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압축성장의 시대를 맞아 산업화와 물질만능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사회가 각박해지고, 개인주의를 지나 이기주의가 지나치게 팽배해져 도덕과 인성이 날로 피폐해지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앞으로 세종시 효 교육원 신입 원장으로서 각 학교의 인성 교육의 기본에 효를 접목시키고, 효지도사 교육에 공무원의 참여를 권장시키는 한편, 각종 공익단체 혹은 복지단체 소속 직원들이 효지도사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승업 부의장, 자랑스런 대한국민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자부심을 갖고 지역사회에 더욱 봉사할 것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장승업 부의장은 9월 1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2층에서 대한국민대상위원회(위원장 안응모)와 대한국민운동본부(대표 신현두)가 주최하고 엔디뉴스가 주관하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자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국민운동본부는 장승업 부의장이 평소 성실한 자세로 의원으로서 맡은바 소임을 책임있게 추진하면서, 특히 지역 내 주민갈등 해소에 노력하여 왔으며 세종시의회 부의장으로 재임하면서 지방의회의 위상을 드높이고 동료의원 간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날 장승업 부의장은 “이 상은 저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종시의회 전체에게 주는 상이며, 앞으로 자랑스런 대한민국인으로 자부심을 갖고 지역사회에서 헌신과 봉사의 길에 더욱 매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대한국민운동본부에서 주관하는 이 시상식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각 분야에서 국가경쟁력 강화 및 사회복리 향상에 기여한 공이 큰 유공자를 대상으로 상을 수여하고 있는 전국단위 행사이다.



세종 평화의 소녀상 건립 관련 일본의 과거사 규탄 촉구 결의

제국주의로 회귀하려는 일본 정부를 강력 규탄하고, 세종 평화의 소녀상 건립 지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는 9월 14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제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 평화의 소녀상 건립 관련 일본의 과거사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지난 8월 14일 일본 아베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내용은 잘못된 과거를 부정하고 구상유취(口尙乳臭) 수준의 사과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참회의 언급이 없는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며 “이는 일본의 전후세대가 전범국가의 이미지를 숨김으로써 지난 세기 침략과 약탈의 역사를 부정하고, 나아가 구밀복검(口蜜腹劍)의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침략국가로 회귀하려는 야욕을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특히, “꽃다운 나이의 10대 소녀까지

강제로 끌고가 성노예로 삼고, 인권을 철저히 유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후 7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번의 공식 사과도 없이 이를 정당화하는 추악한 작태에서 분노를 넘어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세종시의회에서는 “과거사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은 커녕 거짓과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우리 할머니들의 아픈 과거를 잊지 않고 그 분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세종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적극 지지하며,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가 “일본정부에 공식사과를 요청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서울 ~ 세종간 고속도로 건설 조기착공 촉구 결의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기 착공해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는 9월 14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제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금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건설 조기착공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서울 ~ 세종간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2009년 예비타당성조사와 국가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었지만, 부처간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현재까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서울 ~ 세종간 고속도로가 완공될 경우, 수도권과 충청권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되어 향후 30년간 총 7조 5천억원의 비용절감과 3만 4천여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며 고속도로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등 경제성이 매우 우수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충청권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영호남을 연결하는 남북 대동맥이며,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동서남북의 화합과 번영의 길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세종시의회에서는 “서울 ~ 세종간 고속도로 건설사업비를 2016년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하고, 국회와 정부는 이른 시일내에 착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 · 해양수산부 세종시 조속 이전고시 촉구 결의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세종시로 조속히 이전고시해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는 9월 14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제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영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래창조과학부 · 해양수산부 세종시 조속 이전고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공주 · 연기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세종시 이전 제외기관으로 외교부 · 통일부 · 법무부 · 국방부 · 안전행정부 · 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만 명시하고 있어, 신설부처는 법 제정 취지에 맞게 당연히 세종시 이전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지난 9월 8일 행정자치부가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만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세종시 이전 고시 대상기관에서 배제한 것은 제2의 세종시 수정안으로 20만 세종시민과 500만 충청인을 무시하는 처사로 여길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 정부에서는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를 수차례 약속했으나,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저 마련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세종시 건설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세종시의회에서는 “국회와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및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조속히 세종시로 이전 고시하라”고 강력히 촉구하였다.



2015년도 하반기 의정연수 실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으로 의정역량 강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 의원 및 직원 등 26명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의정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의원과 직원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생산적인 의회운영을 통한 선진의정을 구현하고자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전라남도 목포에서 2015년도 하반기 의정연수를 실시하였다. 16일에는 김용석 서울시의회 의원을 초청하여 실무적인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한 직무교육을 받았으며, 17일에는 최인혜 박사로부터 글로벌의회의 인문학적 의정활동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임상전 의장은 “의회가 시정을 제대로 감시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해 의정역량을 제고해야 한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의정활동 사례위주의 알차고 실무적인 직무교육을 받았으며, 의원 및 직원 합동 연수로 상호 간 친선과 우의를 증진하는 화합의 장이 되었다”고 밝혔다.



충청권 시도의회 의장 공동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세종시 조속 이전 촉구 결의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 따라 당연히 세종시로 이전해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는 9월 22일 오전 11시 세종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인식), 충청북도의회(의장 이안구), 충청남도의회(의장 김기영)와 공동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세종시 조속 이전 촉구'를 결의했다.

이번 결의는 최근 행정자치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를 제외하고,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만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잠정 결정함에 따라 충청권 시·도의회 차원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세종시 조속 이전'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충청권 4개 시도 의장단은 결의문을 통해 "최근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이전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에 대해서만 이전을 잠정 결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를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500만 충청민과 20만 세종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정부는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 따라 아직 이전되지 않고 있다"고 규탄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를 조속히 세종시로 이전하라"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임상전 의장은 "「행복도시건설특별법」제16조에는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 서울에 잔류할 6개 부처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를 포함한 신설부처는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 따라 당연히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며 "우리 충청인의 뜻을 결집해 미래창조과학부의 조속한 세종시 이전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며, 향후 충청권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교육 방향성 모색을 위한 환경 포럼 개최

환경교육 자원과 방향성을 모색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환경교육 연구 모임(대표 정준이 의원) 주관으로 9월 24일 오후 2시 행복도시 보람동에 위치한 세종시 청사에서 세종시 환경교육 활성화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는 임상전 세종시의회 의장과 이춘희 세종시장 이 축사를 시작으로 환경전문가의 열띤 토론과 관심있는 시민 100여명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이재영 교수는 '세종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언'이란 주제 발표에서 "현재 갖추어진 세종시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지속가능한 생태환경교육 학습도시 건설에 시민과 기관이 공동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의 좌장을 맡은 정준이 의원은 "평소 세종시 출범이후 개발과 환경교육이 공

존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번 포럼을 통해서 「세종시 환경교육 진흥조례 제정」과 세종시 환경교육 센터 건립에 대한 기본 틀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올 연말까지 세종시의회 환경교육 연구 모임 활동결과 보고서를 발간하여 세종시에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환경교육의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5 Minutes Speech

5분 자유발언





김원식
의원

(제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교육청 연수원 부지 재정비 필요

시에서는 신도심과 구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 청춘조직원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다양한 방법 및 구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조직원읍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평당 120만원에 토지를 매입하는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직원읍을 발전시킬 방법으로 교육청 연수원 부지 활용 계획을 구상하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다양한 계획이 구상되어야 하나 당장에는 교육생 유치에 환영하는 목소리도 들릴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효과는 미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했던 대로 주거지역이나 국책기관 또는 그에 관련된 기관들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연수원 부지를 도심 외곽에 마련하여 경제적, 현실적으로 조직원읍이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비해야 합니다.

(제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흡연부스 설치 필요

최근 세계보건기구에서 매년 약 60만명이 간접흡연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 계층은 여성과 아동에 집중되었다고 발표해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간접흡연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우리 시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전면 금연 시설로 공중이용시설의 공공청사, 학교, 음식점 등 3,806개소가 해당되며, 시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으로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주유소 등 474개소 등 총 4,280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공중이용시설 내에서의 금연문화는 정착되고 있는데,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흡연구역은 감소됨으로써 흡연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젠 최소한의 흡연권 보장과 비흡연자, 여성 및 아동의 건강을 위한 흡연권을 존중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시에서 흡연자의 흡연권과 비흡연자의 흡연권 및 쾌적한 환경에서의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 주요도로변 또는 공중이용시설 등에 흡연부스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서금택
의원



Main Agenda

주요 안건 처리 현황

제32회 임시회

9월 2일부터 14일까지 13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32회 임시회에서는 김원식 의원과 서금택 의원이 각각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교육청 연수원부지 재정비 필요',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흡연부스 설치 필요'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총 75억원 규모의 「2015년도 세종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처리하였다.

주요 처리 안건은 총 123건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민간병원원 집중비 지원사업 성립전 예산사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과 '세종시 작은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 조례안 116건이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세종 평화의 소녀상 건립 관련 일본의 과거사 규탄 결의안',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건설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 세종시 조속 이전고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주요 처리안건]

01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제안자 : 박영송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15.7.21.)에 따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정하는 등 일부 조문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02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제안자 : 정준이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 조치원청소년수련관 신축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에 이를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03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원안가결)

제안자 : 이충열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 농촌고령자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에 따라 설치한 작은목욕탕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04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제안자 : 박영송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15.7.21.)에 따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정하는 등 일부 조문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제32회 임시회

05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수정가결)

제안자 : 세종시장

주요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06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가결)

제안자 : 세종시장

주요내용 : 생활안전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을 2억 감액하고, 대변인 '영상매체 활용 홍보' 사무관리비 2억을 신규추가하는 등 기정예산 1,207,689백만원 대비 7,558백만원(0.63%) 증액된 1,215,247백만원으로 의결

07 세종특별자치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조례안(원안가결)

제안자 : 세종시장

주요내용 : 제3군감염병인 한센병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

을 갖춘 기관에 한센병 관리를 위한 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서비스 향상과 질 높은 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08 세종특별자치시 의약품 등 선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제안자 : 세종시장

주요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의약품 등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약품 등 선정·구매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올바른 의약품의 이용을 통하여 시민에게 보다 건강한 보건의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그 밖의 처리안건]

기타안건 (2건)

-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세종특별자치시 의회청사 증축계획](원안가결)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원안가결)

시민 곁에서, 현장 속에서, 정의 편에서
늘 함께하는 세종시의회



[결의문]

－「세종 평화의 소녀상」 건립 관련 일본의 과거사 규탄－

- 우리는 1919년 3월 13일 오전 9시경 전의시장 갈정동 고개에서 시작된 3·1만세운동은 조치원을 만세시위와 남면 봉화시위를 거쳐 금남면 대평시장 만세 시위까지 일제의 무력과 총칼 앞에 분연히 일어난 범민중적인 독립운동으로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억하고 있다.
- 그런데, 지난 8월 14일 일본 아베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 내용은 잘못된 과거를 부정하고 구상유취(口尙乳臭) 수준의 사과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참회의 언급이 없는 빈껍데기에 불과했다.
- 이는 일본의 전후세대가 전범국가의 이미지를 숨김으로써 지난 세기 침략과 약탈의 역사를 부정하고 나아가 구밀복검(口蜜腹劍)의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침략국가로 회귀하려는 야욕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 특히, 일본은 꽃다운 나이의 10대 소녀까지 강제로 끌고가 성노예로 삼고 인권을 철저히 유린하였음에도 전후 7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번의 공식 사과도 없이 이를 정당화하는 추악한 작태에서 분노를 넘어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 이에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모두는 과거사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은 커녕 거짓과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일본정부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 또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우리 할머니들의 아픈 과거를 잊지 않고 그 분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세종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적극 지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일본 아베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에서 진심어린 반성없이 제국주의로 회귀하려는 야욕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세종 평화의 상」 건립을 적극 지지하며,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가 일본정부에 공식사과를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

2015. 9. 1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건설 조기착공 촉구－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건설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선도하는 번영의 길입니다.

- 세종특별자치시는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되는 대한민국 최대의 국책 도시로 3단계에 걸친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지난해 마무리 되었습니다.
- 특히, 세종시 출범 이후 3년 만에 인구가 두배 이상 증가하고 각종 생활 편의시설이 속속 들어서는 등 상 전벽해의 도시이자,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경부선과 호남선, 경부·중부고속도로는 교통량 한계와 극심한 정체로 인하여 서울과 세종을 오 가는데 3~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등 교통환경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 이를 감안하여 정부는 2009년 예비타당성조사와 국가도로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였지만, 부처간 사업추 진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현재까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 서울-세종간 고속도로가 완공될 경우 수도권과 충청권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되어 50분 정도 소요되고, 향후 30년간 총 7조 5천억원의 비용절감과 3만 4천여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며, 고속도로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등 경제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서울 ~ 세종 고속도로」건설사업비를 2016년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국가경쟁력강화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선도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빠른 시 일내에 착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 9. 1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세종시 조속 이전고시 촉구

- 세종시는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되는 대한민국 최대의 국책도시로 3 단계에 걸친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지난해 마무리 되었습니다.
- 특히, 세종시 출범 이후 3년 만에 인구가 두배 이상 증가하고 각종 생활 편의시설이 속속 들어서며 등 상 전벽해의 도시이자,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공주·연기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세종시 이전 제외 기관으로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안전행정부·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만 명시하고 있어, 신설 부처의 세종시 이전은 법 제정 취지에 맞게 당연히 이전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최근 행정자치부가「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만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세종시 이전 고시 대상기관에서 배제한 것은 제2의 세종시 수정안으로 20만 세종시민과 500만 충청인을 무시하는 처사로 여길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 정부가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을 무시하고, 신설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더 이상 미루거나 중단하려는 시도는 국민적 비난을 받을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 또한, 현 정부에서는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를 수차례 약속했으나,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저 마련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세종시 건설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 따라서, 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의 선도적 역할을수행하는세종시가 정상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와「해양수산부」는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염원이며, 이는 곧,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일동은 20만 세종시민과 함께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조속히 세종시로 이전고시 할 것을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및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를 조속히 세종시로 이전고시하라.

2015. 9. 1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Standing committee

상임위원회 활동

의회운영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
대중교통 운영개선 특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 제32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세종 평화의 소녀상 건립관련 일본의 과거사 규탄 결의안」등 총 3건을 심의 하여 2건은 원안, 1건은 수정 의결하였고, 201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하였다.



서금택 위원장



김복렬 부위원장



고준일 위원



김원식 위원



김정봉 위원



장승업 위원



정준이 위원



Standing
committee

행정복지위원회



이충열 위원장



정준이 부위원장



김복렬 위원



박영송 위원



서금택 위원



윤형권 위원



장승업 위원

- 제32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3일 행정복지위원회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청취하고, 9월 4일과 7일 양일간은 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63건의 일제정비 조례안과 일반 조례안 9건,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건, 동의안 1건 등 총 74건을 심사하여, 그 중 70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9월 8일에는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예비심사하여 기정액 5,374억 대비 796백만원 증가한 5,382억을 증액 심사 하였다.





산업건설위원회



고준일 위원장



김원식 부위원장



김선무 위원



김정봉 위원



안찬영 위원



이경대 위원



이태환 위원

- **제32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3일에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총 66건에 대한 보고 및 청취하여 의견을 개진하였고, 9월 4일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여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기업 등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다. 9월 8일에는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을 심사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 가결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으며, 제명이 중복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대안으로 채택 가결하였다.



Standing
committee

교육위원회

- 제32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10일 교육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심의하여 원안의 결 하였으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 청취의 건」을 청취하였다.



박영송 위원장



이태환 부위원장



김선무 위원



안찬영 위원



윤형권 위원



이경대 위원



이충열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32회 임시회기간 중인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이 기간 중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였다.



이태환 위원장



김정봉 부위원장



고준일 위원



이경대 위원



윤형권 위원



장승업 위원



정준이 위원



Standing
committee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 제32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를 8월 19일부터 8월 25일 기간 중 3일에 걸쳐 행복도시 1생활권에 위치한 공원, CCTV, 도로 등 3개시설 15개소에 대한 현장에서 시설현황을 청취 후 실제 운영상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활동을 실시하였다.



안찬영 위원장



정준이 위원



장승업 위원



윤형권 위원



김정봉 부위원장



김복렬 위원



Standing
committee

대중교통 운영개선 특별위원회



이태환 위원장



김원식 부위원장



이경대 위원



고준일 위원



장승업 위원



서금택 위원

- 제31회 제1차 정례회 폐회기간 중인 8월 17일 대중교통 운영개선 특별위원회는 첫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이태환을, 부위원장에 김원식 의원을 선출하고, 특별위원회 활동 기본계획을 채택하였고, 집행부로부터 대중교통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였다.

- 제32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인 9월 24일 대중교통 운영개선 특별위원회는 「 시내버스업체 회계감사 및 경영평가 운송원가산정용역」 중간보고에 대한 결과를 청취하였다.



언론에 비친 세종시 의회

Sejong City Council Newspaper

2015

충청투데이

2015년 7월 2일

동양일보

2015년 7월 9일

충청투데이

2015년 07월 02일
15면 (지역)



세종시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농촌일손돕기운동을 펼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사무처 농번기 농촌일손돕기

세종시의회(의장 임상전) 사무처 직원 15명이 제2대 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은 1일 연서면 청라리 마을에서 농번기 지역 주민들의 일손을 덜어준다는 물론, 현지 농민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자 농번기 농촌일손돕기에 나섰다. 이날 일손돕기는 매 재배농기를 찾아 무더위속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하기 위한 태나루 지지대 정비 등의 작업을 실시했다. 세종·황근하 기자

동양일보

2015년 07월 09일
05면 (종합)

세종시의회 '전국 최고' 입법 활동 전개

조례 제·개정 등 의원입법 발의 전국광역단체 3배



세종시의회가 출범 1년을 맞아 8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1년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출범 1년을 맞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27)가 지난 1년간 의회 고유의 기능인 조례 제·개정 등 의원입법 발의의 전국 광역의회 중 최고의 왕성한 활동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의회는 2014년 전국 광역의회의 의원 1인당 0.93건의 조례안을 발의한 것에 비해 1인당 4.2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이는 인구 지자체인 대전(1.36 건)보다도 높고, 충청남도(0.97건)보다도 높게는 2배에서 3배를 상회했다.

특히, 의원 1인당 조례는 2건, 불결은 8건을 발의 하는 등 모본의회의 열정적으로 시민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입법 활동 및 정책의 발원. 의정활동에 반영 하고자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의회는 지난해 2기 출범과 함께 각 상임위는 물론 연구모임과 행정 지원단은 연구와 공부하는 의회 상정법을 위해 노력했다.

대표적인 예로 세종시의회 환경연구모임과 균형발전 연구모임 조직원을 강행단공정운영대책

연구모임은 의원연구모임을 구성,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등 연구하는 의회 상정법에 앞장서고 있다.

또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와 올바른 시장의 견인차 역할을 위해 시장 직분을 통해 9개 분야 총 48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등 5분 자유발언을 통해 9개 분야 32건을 촉구,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또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교육형 공무원 인사와 교육행정 감사, 2차입의도원 유치와 MFI 장비 설치, 감사위원회 기능 정립과 각종 생활권의 확충을 시 수렴장 시 설계, 세종시1단계 생활수공 급수지와 관련된 수돗물 공급량과 부담금 등을 지적, 시정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와 교육청 및 산하기관 등 34개 부서기관에 총 246건을 지적 보완 시정토록 하는 등 예산 산 실사를 통해 사업 효과성과 미흡하거나 재정운영상 불합리·과다 계산별 사업에 대해 행정결정과 현 분기이견을 청취 예산을 삭감하는 등 결산승인과 연계해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도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촉구했다.

특히 시의회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청산성 예산 등은 과감히 삭감, 민생위주의 예산에 심의가 되도록 지역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시 민생환장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서민 밀착형 사업의 확대에 주력했다.

<세종 일규>

충남일보

2015년 7월 10일

충남일보

2015년 07월 10일
04면 (지역)

세종시의회, 신청사 첫 공식 방문

임상전 의장 "시민의 입장에서 소통·개방의 공간으로 꾸며달라"



세종시의회 임상전 의장을 비롯한 의원 9명은 9일 오전 10시 30분 세종시 신청사를 처음으로 공식 방문하여 이윤희 시장의 입장을 받았다.

세종시의회 임상전 의장을 비롯한 의원 9명은 9일 오전 10시 30분 세종시 신청사를 처음으로 공식 방문하여 이윤희 시장의 입장을 받았다.

이후 5층 집현실에서 시장 통사관과 함께 세종시 신청사 및 시설에 대해 보고를 받고, 신청사 각 층과 근방에서 견학한 뒤,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이윤희 시장과 함께 회담을 가졌다.

집현처 의원은 시장과의 회담 자리에서 "신청사 개청으로 공무원들이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많은 이유가 예상된다"며 "포지티브를 비롯한 주요인이 광명화되지 않도록 선물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시장과 의원은 "부동산 살기 어려운 환경인 만큼 민원 담당 공무원이 포지티브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임상부 의원은 "세월호의 주자승인이 부족해 드로잉 불법주차가 있다"며 "개항이 이루어진 2015년부터 불법주차를 조속히 해결해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임상전 의원은 "신청사 여주와 함께 갈았는데 어느새 차가 많은 것 같아 뿌듯한 기분이 든다"며 "행정시정의 입장에서 소통과 개방의 공간으로 꾸며달라"고 말했다.

세종=전보주 기자

언론에 비친 세종시 의회

Sejong City Council Newspaper

2015

충청투데이 2015년 8월 13일

대전일보

2015년 8월 18일

충청투데이

2015년 08월 13일
04면 (정치)

■ 우수의정 대상



김선무 서금택

세종시의회 김선무·서금택

세종시의회(의장 임상전) 김선무·서금택의원이 12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 주관으로 열린 '제2회 우수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김선무·서금택 의원은 오지마을 교통대책 마련, 언탄공장과 비행장 인근주민의 민원해결 등에 앞장서 왔다.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된 김선무 의원은 "이 상은 저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종시의회 전체에게 주는 상이며, 지역민과 함께 민심을 살피는 생활정치에 힘써 더욱 매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서금택 의원도 "먼저 그동안 세종시 출범과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같이 노력해준 선배·동료 의원님이 함께 받아야 할 영광스러운 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황근하 기자 quest@ccctoday.co.kr

충청투데이 2015년 8월 28일

大田日報

2015년 08월 18일
05면 (종합)

세종시 대중교통 개선책 찾는다

시의회 특위 활동 돌입

세종시의회 대중교통 운영개선 특별위원회는 17일 대중교통 운영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제1차 회의를 가졌다.

고준일 의원이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된 회의에서는 대중교통 특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각각 이태환, 김원식 의원을 선출했으며, 향후 특위 활동 기본계획안을 채택했다. 이어 시의 교통과로부터 시내버스 업체의 회계감사, 경영평가 및 운송원가 산정에 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았다.

대중교통 특위는 세종시 출범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대중교통 수요에 부응한 운수업체의 경영개선 및

서비스평가를 통해 합리적인 재정지원 기준을 마련해 시민이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태환 대중교통 특위 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시내버스 업체 경영평가 보고 자료를 살펴 보니 운송업체의 보조금 집행은 물론 경영상의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다"면서 "철저하고 투명하게 검토·분석해서 대중교통 운영 전반에 대한 혁신적인 개선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중교통 특위는 이태환 위원장, 김원식 부위원장, 고준일·서금택·이경대·장승업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됐으며, 올해 12월 말까지 활동을 계획한다. **강대목 기자**

충청투데이

2015년 08월 28일
15면 (지역)



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위, 도로 점검

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는 19~25일 행복도시 1생활권에 위치한 공원, CCTV, 도로 등 3개시설 15개소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세종시의회 제공

언론에 비친 세종시 의회

Sejong City Council Newspaper

2015

대전일보

2015년 8월 31일

대전일보

2015년 9월 1일

大田日報

2015년 08월 31일
20면 (인물)

임상전 세종시의회의장 효교육원 신임원장 취임



세종시의회 임상전 의장이 세종시 효 교육원 신임 원장에 취임했다. <사진> 임상전 의장은 지난 28일 조치원을 명지빌딩에 위치한 효 교육원 강당에서 세종시 효 교육원 신임 원장 취임식을 가졌다. 임상전 의장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압축성장의 시대를 맞아 산업화와 물질만능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사회가 각박해지고, 개인주의를 지나 이기주의가 지나치게 팽배해져 도덕과 인성이 날로 피폐해지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앞으로 세종시 효 교육원 신임 원장으로서 각 학교의 인성 교육의 기본에 효를 집목시키고, 효지도사 교육에 공무원의 참여를 권장시키는 한편, 각종 공익단체 혹은 복지단체 소속 직원들이 효지도사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대록 기자**

大田日報

2015년 09월 02일
20면 (인물)

장승업 세종시 부의장 ‘지방자치 의정대상’

세종시의회장승업<사진>부의장은 1일 국회 헌정기념관 2층에서 열린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자치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국민운동본부는 장 부의장이 평소 성실한 자세로 의원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책임 있게 추진하면서, 지역 내 주민갈등 해소에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시의회 부의장으로 재임하면서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동료의원 간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김대록 기자**

충청매일

2015년 9월 21일

충청매일

2015년 09월 21일
15면 (인물)



세종시의회, 전문지식 습득 등 하반기 의정연수

세종시의회 의원 및 직원 등 26명은 지난 16~18일, 전라남도 목포에서 2015년도 하반기 의정연수를 실시했다(사진)

이번 의정연수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 등 의정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의원과 직원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 생산적인 의회운영을 통한 선진의정을

구현하고자 실시됐다.

먼저 의정연수 첫날인 지난 16일에는 김용석 서울시의회 의원을 초청, 실무적인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한 직무교육, 17일에는 최인혜 박사로부터 글로벌의회의 인문학적 의정활동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김오준기자**

언론에 비친 세종시 의회

Sejong City Council Newspaper

2015

중도일보

2015년 9월 23일

중도일보

2015년 09월 23일
01면 (종합)

“미래부 세종이전 조속 이행” | 4개 시·도의회 공동결의문 낭독 “500만 충청도민 무시하는 처사”

시민사회단체에 이어 충청권 4개 시·도 의회가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조속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인식 대전시의회 의장과 임상전 세종시의회 의장, 이언구 충북도의회 의장, 김기영 충남도의회 의장은 22일 세종시 의회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결의문을 낭독했다. 세종시의회 윤영권 부의장과 김선부·박영송·정준이·고준알·안찬영·이태환 의원도 함께 했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취지를 담은 세종시 정상 건설이 수도권 규제완화 등의 역행 흐름과 함께 지지부진하다는 진단으로 시작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최근 미래부 이전을 보류하는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면서, 논란을 촉발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16조를 위반하는 행위이자 직무유기고, 500만 충청도민과 20만 세종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규정했다.

4개 시·도의회 의장은 한 목소리로 “정부는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따라 아직 이전하지 않은 미래창조과학부를 세종시로 이전 고시하라”고 주장했다.

김인식 의장은 “오늘 자리를 통해 미



〈사진 왼쪽부터〉김인식 대전시의회 의장, 임상전 세종시의회 의장, 이언구 충북도의회 의장, 김기영 충남도의회 의장이 22일 세종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관련 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를 세종시로 조속히 이전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제공

래부 세종 이전 정상화가 절되리라 믿을 권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 발전을 위해서 과 확신을 갖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한 국책사업임을 분명히 한다. 충청권 사업으로 폄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언구 의장은 “당위성과 설득력을 충분히 지닌 사안인 만큼, 확실하게 문치 대응해야한다”며 “500만 충청도민 한마음으로 해결하자”고 재언했다.

김기영 의장은 “미래부 세종시 이전은 당연한 수순이고 국가 혁신의 몸나뉬이 이자 상생발전의 가치 구호”라며 “충청

권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함께 해야한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밝혔다.

임상전 의장은 “미래부 배제는 제2의 수정안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는 플러스 알파 약속을 이행하라”며 “자족성 확충을 위한 대책을 포함해 미래부 이전을 약속하라”고 말했다.

4개 시·도의회는 당장 23일 공청회에 공동 대응하는 한편, 전국 시·도 의장단 협의회 공조도 이끌어내는 등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한다. 세종=이희택 기자

세/종/시 가볼만한 곳

국립세종도서관

지하 2층 지상 4층의 규모의 국립세종도서관은 지난 2013년에 개관한 이래 가족 단위의 방문자들이 꾸준히 잇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대표 문화공간이다. 서고, 열람실, 강의실, 카페테리아 등 도서관 이용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고, 이외 각종 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립세종도서관은 책장을 넘겨 얹어놓은 듯 만들어진 지붕의 외관으로 특히 눈길을 끄는데 이는 책장을 한장 한장 넘기는것, 데이터가 폴더에서 폴더로 넘어가는 것에서 착안한 것으로, 아날로그 형태에 디지털을 수용하고 더불어 인간의 감성까지 담은 성도서관을 지향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48(어진동 산 114)

전화번호 044-900-9114

홈페이지 <http://sejong.nl.go.kr>



금강자연휴양림



금강자연휴양림은 백제의 역사와 숲 체험학습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여름 휴가지로 좋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어 숲에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초록이 가득하고 금강자연휴양림의 랜드마크인 열대온실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열대식물들을 관람할 수 있으며, 7월 중순부터 8월까지의 야영장을 개방하여 쾌적한 캠핑이 가능하다.



금강자연휴양림은 백제의 역사와 숲 체험학습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여름 휴가지로 좋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어 숲에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초록이 가득하고 금강자연휴양림의 랜드마크인 열대온실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열대식물들을 관람할 수 있으며, 7월 중순부터 8월까지의 야영장을 개방하여 쾌적한 캠핑이 가능하다.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산림박물관길 110(도남리12-2)

전화번호 041-635-7400

홈페이지 <http://www.keumkang.go.kr>



밀마루전망대

세종특별자치시의 중심행정타운 중앙에 조성된 밀마루전망대는 동서남북 어디서든 도시의 모습을 관람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 전망대에 오르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모습과 공주, 조치원 등 인근 지역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전체 조감도와 첫마을 조감도, 토지이용 조감도도 설치해 놓아 조감도를 살펴보면서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의 모습을 동시에 상상해 볼 수 있다.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3로 58

전화번호 044-862-8845, 860-7911(예약)

개장시간 평일 10:00~17:00 / 토·일·공휴일 10: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30)

입장료 무료



비암사

전통사찰 비암사는 통일신라 말기 도선국사가 창간한 사찰이라고 하나 확실한 연혁은 알 수 없다. 효종 8년(1657)에 복원된 비암사 극락보전 내 닫집은 그 제작 수법이 교묘하고 화려하다. 비암사에서 1960년에 발견된 국보 106호는 국립청주박물관에 보관되어 있고, 보물 367호, 보물 368호는 국립공주박물관에 보관중이다. 주변 이 숲에 쌓여있고 인적이 드물어 옛 산사의 풍취를 한껏 느낄 수 있는데, 이곳에 있는 수령 800년이 넘는 느티나무 또한 볼거리이다.



비암사도깨비도로

비암사 가는 산길로 약 1.3km쯤 올라가는 중간쯤에 약 150m 가량은 내려가는 길인데도 마치 올라가는 것 같은 착시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이른바 ‘도깨비 도로’이다. 도깨비 도로 시작점과 끝나는 지점을 알리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어 호기심 많은 관광객들은 직접 실험을 해보기도 한다.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비암사길 137(전의면 다방리 4) **전화번호** 044-863-0230

홈페이지 <http://cafe.daum.net/bas0230> 지정현황비암사 3층석탑 시유형문화재 제3호, 전의 비암사 영산회 괘불탱화(시유형문화재 제 12호)

시민 여러분의 옥고(玉稿)를 기다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의회소식지인 「세중의회소식」에서는
시민 여러분의 옥고(玉稿)를 기다립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은 따뜻한 이야기나 감동적이 사연,
시의회 방청 및 방문을 통해 느낀 점, 의회에 바라는 글을
보내주시면 소중히 하겠습니다.

※ 증명사진 및 관련사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채택된 글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원고분량 :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



세중의회소식 2015 Sejong City Council 통권 제9호

발 행 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처(공보담당)
발 행 일 2015년 11월 통권 제9호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전 화 044-300-7242
홈페이지 <http://www.council.sejong.go.kr>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열린의회!



세종 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

